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 과정에서 독자가 자신의 이해 상태를 점검하고 조절하는 메타인지적 활동은 효과적 독해의 핵심 요인으로 여겨진다. 메타인지란 ‘인지에 대한 인지’로, 자신의 사고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상위 수준의 인지 활동을 의미한다. 독서에서는 텍스트 이해도를 스스로 점검하고, 이해가 불충분할 때 이를 감지하여 적절한 전략을 선택·수정하는 자기 조절 활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메타인지적 독서 전략이 모든 상황에서 독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특정 조건에서는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통적 관점에서 메타인지적 독서는 계획하고, 읽는 과정을 점검하고, 다 읽은 후에는 내용을 평가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독자는 읽기 전 목적을 설정하고 전략을 계획하며, 읽는 중에는 이해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만약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읽거나 추론 등의 수정 전략을 즉시 적용한다. 이러한 자기 조절 과정은 텍스트의 독자의 머릿속에 구성되는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정교화하여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숙련된 독자일수록 독서과정에서 메타인지적 활동이 활발하며, 이는 우수한 독해 성취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모든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인지 부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작업 기억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제한적이다. 메타인지적 점검 자체가 이 제한된 인지 정보를 소비하므로, 복잡한 텍스트 처리와 동시에 수행될 때 인지적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글의 난이도가 독자의 배경지식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과도한 점검은 독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정작 텍스트 내용 자체에 대한 처리를 방해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글의 특성과 자신의 지식수준에 따라 메타인지 전략을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먼저 읽을 글의 난이도와 자신이 그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익숙한 주제의 글이라면 자연스럽게 읽되, 중요한 개념이나 논리가 바뀌는 부분에서만 이해를 점검한다. 이렇게 하면 읽기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어려운 전문 글을 읽을 때는 각 문단의 요점을 정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표시해 두었다가 다시 읽는다. 중요한 것은 메타인지적 점검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것이다. 지나친 자기 점검은 오히려 글의 내용 파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효과적인 독서란 텍스트 이해라는 목표와 인지적 노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메타인지적 독서 전략은 현대 독서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 ②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메타인지적 활동을 최대한 많이 수행해야 한다.
- ③ 효과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텍스트와 독자의 특성을 고려한 메타인지 전략의 선택적 활용이 필요하다.
- ④ 인지 부하 이론이 전통적인 메타인지 이론을 완전히 대체해야 한다.
- ⑤ 숙련된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적 점검을 의식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텍스트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메타인지적 점검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 ② 독자의 배경지식이 부족한 경우 과도한 자기 점검이 독해를 방해할 수 있다.
- ③ 메타인지적 활동과 텍스트 내용 처리는 동일한 인지 자원을 사용한다.
- ④ 익숙한 주제의 글을 읽을 때는 선택적인 메타인지 전략이 효과적이다.
- ⑤ 독서 중 이해도 점검은 작업 기억의 용량과 무관하게 수행된다.

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대학생 A는 전공 수업에서 양자역학 교재를 읽고 있다. 물리학 비전공자인 A는 복잡한 수식과 낯선 개념들로 가득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매 문장마다 자신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즉시 다시 읽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한 시간이 지나도 첫 장을 넘기지 못했고, 오히려 내용 파악이 더 어려워졌다고 느꼈다.

- ① A는 메타인지적 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않아 독해에 실패한 것이다.
- ② A의 과도한 메타인지적 점검이 제한된 인지 자원을 소진시켜 텍스트 내용 처리를 방해한 것이다.
- ③ A가 숙련된 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메타인지 전략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 ④ A는 읽기 전 계획 단계를 생략했기 때문에 독해 효율이 떨어진 것이다.
- ⑤ A의 배경지식이 충분했다면 매 문장마다의 점검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과학적 지식'은 자연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의 산물로,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 동력이다. 전통적으로 과학 지식은 객관적 사실의 발견과 축적을 통해 선형적으로 발전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과학사학자 토머스 쿤은 과학의 발전이 점진적 과정이 아니라, 특정 시기 과학자 공동체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등장과 교체를 통해 혁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쿤의 이론에 따르면 과학 공동체는 공유된 이론, 법칙, 방법론의 총체인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정상 과학' 시기를 보낸다. 정상 과학 시기의 주류 과학자 집단은 확립된 패러다임에 대한 강한 신념을 공유하며, 패러다임의 근간을 흔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바탕으로 과학계의 보수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변칙 현상'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변칙 현상이란 기존 패러다임의 예측과 명백히 어긋나는 관찰 결과나 실험 데이터를 의미한다. 주류 과학계는 이러한 변칙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자신들이 믿어온 패러다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 이론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조 가설을 추가하여 변칙 현상을 설명하려 한다. 때로는 관찰자의 실수나 실험 장비의 결함으로 치부하며 이를 무시하기도 한다. 이는 주류 패러다임이 자신의 지적 권위를 유지하고 이론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작동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 가능성을 의도치 않게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방어 기제** 즉 변칙 현상을 ㉠ 억압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동료 심사를 통한 배제이다. 이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가설이나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하도록 동료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연구 자원의 통제이다. 이는 학문적 권위를 가진 주류 과학자들이 연구비 지원 기관이나 학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비주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하려는 연구자에게 연구비나 연구 시설이 배분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지적 권위와 규범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존 패러다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도전을 '비과학적' 혹은 '사이비 과학'으로 폄하하거나, 확립된 연구 절차나 방법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러한 억압의 수단은 대부분 '엄격한 과학적 검증'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므로, 그것이 패러다임의 방어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외부에서는 물론 내부에서조차 인지하기 어렵다. 하지만 억압받던 변칙 현상이 결국 과학혁명으로 나아가는 '패러다임의 위기'가 도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중대한 변칙의 축적이다. 무시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근본적이고 중요한 변칙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그 수가 누적되는 것이다. 둘째, 대안적 설명 체계의 등장이다. 축적된 변칙들을 기존 패러다임보다 더 명료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이 출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과학자들의 지지 확보이다.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지적·경력적 투자가 적은 젊은 세대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지지를 전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특정 시기에 폭발적으로 해결되며 학문 분야 전체가 재편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컨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 뉴턴 역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의 이행이 대표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사례이다. 또한 당대에는 비과학적이라 비판받던 이론이 훗날 정설로 인정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멘델의 유전 법칙이나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패러다임 이론은 이처럼 과학 발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체와 급진적 변화의 동학을 설명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과학적 진보가 단순히 사실을 쌓아 올리는 평탄한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권위 있는 지식 체계의 저항을 극복하고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상 과학 시기의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공유하며 이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한다.
- ② 변칙 현상은 기존 패러다임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 관찰 결과를 의미한다.
- ③ 과학 공동체는 변칙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이론을 수정하거나 보조 가설을 추가한다.
- ④ 패러다임의 위기가 도래하면 기존 패러다임은 즉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체된다.
- ⑤ 멘델의 유전 법칙은 처음 발표되었을 때 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5. 윗글의 **패러다임 방어 기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학적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작동하지만, 실제로는 과학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 ② 변칙 현상을 설명하려 노력하지만, 결국 그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 ③ 이론적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이론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 ④ 과학자들이 의식적으로 작동시키지만, 그 효과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 ⑤ 젊은 과학자들을 배제하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최근 A 분야에서는 기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실험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젊은 연구자 같은 이러한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지만, 주요 학술지들은 감의 논문 게재를 거부했다. 한편, 권위 있는 과학자 을은 감의 이론이 기존의 검증된 방법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연구팀에서 유사한 현상을 관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신진 연구자들이 감의 이론을 지지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개최된 학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특별 세션이 마련되었다.

- ① 감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것은 동료 심사를 통한 배제가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② 을이 감의 이론을 비판하면서도 유사한 현상을 관찰했다고 밝힌 것은 변칙 현상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 ③ 신진 연구자들이 감의 이론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은 패러다임 위기의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④ 학회에서 특별 세션이 마련된 것은 A 분야가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 ⑤ 을이 방법론을 문제 삼은 것은 지적 권위와 규범을 이용한 패러다임 방어 기제의 작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A]와 [B]를 읽고 추론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패러다임의 방어 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할수록 변칙 현상이 축적되는 속도는 빨라지며, 이는 역설적으로 패러다임 위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 ② 동료 심사를 통한 배제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변칙 현상의 축적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패러다임의 위기는 영구히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연구 자원의 통제가 효과적일수록 대안적 설명 체계의 등장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변칙 현상 자체는 계속 발생하여 누적될 수 있다.
- ④ 차세대 과학자들의 지지 확보는 오직 기존 패러다임의 방어 기제가 완전히 해체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 ⑤ 지적 권위를 이용한 억압이 성공적일수록 변칙 현상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분류되어 과학사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8. 밑글에서 ㉠이 사용된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권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눌러 자유롭지 못하게 함
- ② 정당한 권리나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막음
- ③ 의도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제한함
- ④ 물리적 힘을 가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함
- ⑤ 감정이나 욕구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내적으로 억제함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칭찬이나 비난을 한다. 이는 그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만약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달리 행동할 수 없었다면,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는 정말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인가, 아니면 선행하는 원인들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된 것인가? 철학자들은 이러한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논쟁을 벌여왔다.

근대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연 세계의 모든 사건이 필연적 인과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보았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연의 모든 사건은 선행 원인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며 우연이나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행위 역시 자연 질서의 일부로서 필연적 인과 연쇄에 포함된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가 행위를 결정하는 원인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다. 만약 떨어지는 돌이 의식을 가진다면, 자신이 자유롭게 낙하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느끼는 자유의지도 무지에서 비롯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론 철학자 흄은 이러한 결정론적 입장과 달리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흄은 자유와 필연성의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두 개념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자 했다. 흄에 따르면, 자유란 외적 강제가 없이 자신의 욕구와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감옥에 갇힌 사람과 ㉡자발적으로 방에 머무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두 사람 모두 방을 떠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후자만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후자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한편 흄은 필연성이란 원인과 결과가 반복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것을 관찰한 후 우리 마음에 형성되는 기대일 뿐이라고 보았다.

9.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피노자는 인간의 행위가 자연의 필연적 인과법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 ② 흄은 자유란 외적 강제 없이 자신의 욕구와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 ③ 칸트는 인간이 감성적 존재인 동시에 이성적 존재라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 ④ 스피노자는 인간이 행위의 원인을 완전히 인식하면 자유의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⑤ 흄은 필연성을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관찰로부터 형성되는 심리적 기대로 이해했다.

1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외적 강제에 의해, ㉡은 내적 욕구에 의해 행동이 결정된다.
- ② ㉠과 ㉡은 모두 자연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된 상태이다.
- ③ ㉠은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은 예측이 불가능한 행동을 한다.
- ④ ㉠과 ㉡의 차이는 이성적 판단 능력의 유무에서 비롯된다.
- ⑤ ㉠과 ㉡은 모두 선행하는 원인 없이 발생한 자유로운 상태이다.

11. 스피노자, 흄, 칸트의 입장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피노자는 흄과 달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지에서 비롯된 환상으로 보았다.
- ② 흄은 칸트와 달리 자유와 필연성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③ 칸트는 스피노자와 달리 인과법칙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④ 스피노자와 칸트는 모두 경험 세계의 모든 사건이 인과법칙에 따른다고 보았다.
- ⑤ 흄과 칸트는 모두 도덕적 책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12. <보기>를 읽고 윗글의 철학자들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갑은 평소 정직한 성격이지만, 오늘 회사 면접에서 자신의 경력을 과장하여 말했다. 갑은 실업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번 면접에서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 ① 스피노자는 갑의 거짓말이 그의 성격과 상황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갑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볼 것이다.
- ② 흄은 갑이 외부의 물리적 강제를 받았으므로 그의 행위를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 ③ 칸트는 갑이 현상계의 인과법칙에만 따랐으므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다고 볼 것이다.
- ④ 스피노자는 갑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한 원인들을 충분히 인식했다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것이다.
- ⑤ 흄은 갑의 행위가 그의 내적 성격과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예측 불가능한 자유로운 행위라고 볼 것이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도덕적 책임>에 대한 철학자들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피노자의 관점에서는 모든 행위가 필연적으로 결정되므로 전통적 의미의 도덕적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원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 ② 흄의 관점에서는 행위가 인과적으로 결정되더라도 그것이 행위자의 성격과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③ 칸트의 관점에서는 현상계에서의 결정성과 예지계에서의 자유가 양립하므로 도덕적 책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④ 스피노자와 흄은 모두 인간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부정하므로 도덕적 책임 귀속이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 ⑤ 흄과 칸트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유와 필연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도덕적 책임의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볼 것이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을 웃는 동물이라고 한다. 모든 문화권에서 웃음과 관련한 표현이 발견된다는 것은 웃음이 인간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현상임을 보여 준다. 플라톤이 웃음을 이성의 **①교란**으로 보아 경계한 이래로 아리스토텔레스, 흄스 등이 웃음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베르그송, 바흐친 등의 사상가들이 웃음을 본격적인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베르그송은 『웃음』이라는 저작을 통해 웃음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현대 철학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웃음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지닌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웃음은 '기계적 경직성'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한다. 여기서 기계적 경직성이란 살아 있는 존재가 마치 기계처럼 유연성을 상실하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는 사람을 보고 웃는 것은 그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넘어지는 모습에서 경직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베르그송은 이러한 웃음이 사회적 교정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는데, 웃음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경직된 태도를 **②교정**하고 사회적 유연성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베르그송은 웃음이 발생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웃음은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이어야 한다. 동물이나 사물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그것들이 인간적 특성을 연상시킬 때뿐이다. 둘째, 웃음은 감정의 부재를 전제로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하거나 애정을 느낄 때는 그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도 웃지 않는다. 베르그송은 이를 '감정의 마취'라고 표현하면서, 웃음이 지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웃음은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한다. 혼자 있을 때보다 집단 속에서 웃음이 더 쉽게 일어나며, 웃음은 일종의 사회적 제스처로서 집단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기능을 한다. 베르그송이 웃음의 사회적 기능과 조건에 주목했다면, 바흐친은 웃음이 기존 질서를 전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문화적 힘에 주목하였다.

바흐친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민중 문화를 연구하면서 '카니발적 웃음'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중세 카니발 축제에서 나타나는 웃음이 공식 문화의 엄숙함과 위계질서를 일시적으로 전복시키는 해방적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카니발 기간 동안 왕과 거지의 역할이 바뀌고, 성스러운 것이 속된 것과 뒤섞이며, 금지된 것들이 허용되는데, 이러한 전도(顛倒)를 통해 기존 질서의 절대성이 부정되고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다. 바흐친은 이를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삶의 양가성(兩價性)을 드러내는 창조적 행위로 해석하였다. 죽음과 탄생, 파괴와 재생, 비하와 찬양이 동시에 존재하는 카니발적 웃음은 세계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한다.

바흐친은 또한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을 통해 웃음의 물질적·육체적 차원을 강조하였다.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란 육체의 물질성과 하층 문화의 생명력을 과장되고 왜곡된 형태로 표현하여 공식 문화의 이상화된 관념을 전복시키는 미학적 원리이다. 라블레의 작품에 나타나는 과장된 육체 묘사,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행위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단순한 저속함이 아니라 물질적 하층부가 지닌 생산적 힘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들은 완결되고 폐쇄된 고전적 신체관과 달리, 열려 있고 미완성인 신체관을 제시한다. 바흐친은 이것이 대화적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대화적 관계란 하나의 절대적 진리나 관점을 거부하고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생성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카니발적 웃음은 독백적이고 권위적인 담론을 거부하고 다성적(多聲的) 대화를 추구함으로써, 단일한 진리를 거부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열린 세계를 지향하는 인식론적 태도를 보여준다.

이처럼 현대 사상가들은 웃음을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나 오락으로 보지 않고,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로 파악하였다. 베르그송이 웃음의 사회적 기능과 발생 조건을 분석하여 웃음이 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측면을 밝혔다면, 바흐친은 웃음이 기존 질서를 전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변혁적 힘을 지녔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는 웃음이 사회를 유지하는 동시에 변화시키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 복합적 현상임을 드러낸다. 웃음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탐구는 인간이 단순히 웃는 존재가 아니라 웃음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 *전도: 위아래나 앞뒤가 뒤바뀔. 순서나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는 것
- *양가성: 하나의 대상에 대해 상반되는 두 가지 감정이나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성질
- *다성적: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목소리나 관점이 함께 존재하는 것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플라톤은 웃음이 이성을 혼란시킨다고 보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 ② 베르그송은 동물이나 사물이 인간적 특성을 연상시킬 때만 웃음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 ③ 베르그송은 감정이 개입될 때 우스꽝스러운 행동에도 웃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 ④ 바흐친은 카니발을 통해 기존 질서가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대체된다고 주장하였다.
- ⑤ 바흐친은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 공식 문화의 이상화된 관념을 전복시킨다고 보았다.

15. 베르그송과 바흐친의 웃음에 대한 관점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베르그송은 웃음을 통해 사회적 유연성이 회복된다고 보았고, 바흐친은 웃음을 통해 기존 질서의 절대성이 부정된다고 보았다.
- ② 베르그송은 웃음이 집단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고, 바흐친은 웃음이 독백적 담론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 ③ 베르그송은 웃음의 발생에 사회적 맥락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바흐친은 웃음이 개인적 차원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 ④ 베르그송은 웃음이 미완성된 것을 완결시킨다고 보았고, 바흐친은 웃음이 완결된 것을 미완성 상태로 열어놓는다고 보았다.
- ⑤ 베르그송은 웃음이 하층 문화의 생명력을 긍정한다고 보았고, 바흐친은 웃음이 고전적 신체관을 옹호한다고 보았다.

16. <보기>를 읽고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한 회사에서는 매년 '역할 바꾸기 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하루 동안 신입사원이 CEO 역할을 하고, CEO가 신입사원 업무를 수행한다. 평소 엄격했던 상사들이 실수를 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에 직원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행사가 끝나면 다시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지만, 조직 문화는 조금씩 유연해진다.

- ① 역할이 바뀌는 것은 바흐친의 카니발적 전도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기>
- ② 상사의 실수는 베르그송이 말한 기계적 경직성의 노출로 볼 수 있다.
- ③ 조직 문화의 유연화는 웃음의 사회적 교정 기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④ 이 행사는 위계질서의 절대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변혁적 실천이다.
- ⑤ 서로의 입장 이해는 대화적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7. 문맥상 ㉠와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 ㉡ |
| ① 혼란 | 수정 |
| ② 방해 | 개선 |
| ③ 혼란 | 개선 |
| ④ 방해 | 치료 |
| ⑤ 분열 | 수정 |